

■ 편집자의 글 ■

한인 디아스포라의 연구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호모 미그란스가 준비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지평>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우선 문경희의 논문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은 식민지 시대 한인 이주에 집중된 관심을 넘어 재이주 과정에 주목하고 로컬 영역에서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일국사적 관점에서 형성된 민족·국가주의적 수사를 벗어나서 국경을 이동한 이민자들의 능동성을 강조하면서도 합천이라는 지역성과 세대, 전쟁, 그리고 원폭피해라는 요인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의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신동규의 논문은 해외 한인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호주 지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호주의 이민자 공간 분포와 한인 공동체: 호주의 산업구조에 따른 집중과 분산」이라는 제목에도 나타나듯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던 호주의 산업구조를 통해 한인 공동체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민자 연구에서 노동력 ‘송출국’과 ‘수입국’의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두 논문은 연구 방법론적 관점에서 향후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